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극장으로 가는 길


The Way to the Theater





일 시 _ 2012.9.14(금)~15(토)

장 소 _ 충무아트홀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9번출구)

주최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충무아트홀

주관 국제장애어린이축제집행위원회 후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문의 전화 02-2234-4032 팩스 02-2234-4030 홈페이지 www.thebeffu.org

이메일 arts@chol.com 카페 club.cyworld.com/TTfestival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14~15일 충무아트홀서 개최

기사입력 : 2017-09-14 오후 3:07:48



음악·무용 치유 워크숍 등 진행...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다스린토 초청

[JTN뉴스 본보라 기자] 문화예술교육 디베트(구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충무아트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하는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이하 <극장으로 가는 길>)이 오는 9월 14일, 15일 양일간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은 '극장으로 가는 길'은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극장을 가기 어려웠던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난해할 공간을 비롯해 음악·무용 치유 워크숍 등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축제 축제는 장애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전망이다.

또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장애어린이들에게 '주변인'에서 '중심'이 되는 심리적 위로와 자신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극장으로 가는 길'은 2008년부터 일본 극단 곁에, 오스트리아 극단 매자닌 등 역량이 있는 해외 극단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다스린토(Teatro d'Intino)의 '키시쿠시-탄남의 흔적'(Kish Kush-Traces of an encounter)을 초청한다.

'극장으로 가는 길'은 장애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다. 장애-비장애인 간의 편견 극복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번 축제는 비장애어린이에게도 활짝 열려있다.

축제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만나는 경험은 비장애어린이들에게도 장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시간제한이 필수이며, 극장공연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는다. 극장공연의 수익금은 관객 다들 축제를 위해 쓰여진다. 이 외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한다.

9월 14~15일 충무아트홀.

본보라 기자 bore@tn.co.kr / boreno1@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tn.co.kr

<© 1+ 문화미디어 JTN NEWS(www.tn.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서울·수도권

국제 장애어린이축제 '극장으로 가는 길' 14일부터 열려

김이한 기자 peei@kyunghyang.com

입력 : 2012-09-13 16:28:16 | 수정 : 2012-09-13 16:28:53

펼쳐보기 + - 📷 📄 📌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 축제 '극장으로 가는 길'이 14-15일 이틀간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난버벌(비언어) 공연과 음악·무용 치유 워크숍 등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2003년에 시작된 극장으로 가는 길은 신체·심리적 이유로 극장을 찾기 어려웠던 장애어린이들의 문화권 회복을 위해 시작했다. 장애 사진작가의 사진전, 장애성교육, 테이블인형극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초청한 이탈리아 극단은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공연 '키시쿠시'를 선보인다.

이 축제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구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충무아트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극장공연 외 모든 프로그램은 관람료가 없다. 예약 문의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02)2234-4036.

이 기사 **커밋나옴?**

Howto >

유익해요 | 후원해요 | 공감해요 | 화나요 | 잘못된요

🗨️ 0 📧 0 📌 0 📄 0 더보기 ▾



👍 수줍은 권수축 남편이 좋아해요.

👍 [악학] 양.. 음바로 맞면 괜찮다. 📺 [영상]

국제장애어린이축제 14~15일 충무아트홀서 열려

NEWSis() 기사입력 2012-09-06 16:04

【서울=뉴스시스】 김지은 기자 =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국제장애어린이축제가 14~15일 서울 중구 충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극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의 문화권 회복에 나선다. 년별별 공연을 비롯해 음악·무용·치유·워크숍 등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해외 공연으로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틴토(Teatrodistinto)의 '키시쿠시-만남의 흔적(Kish Kish-Traces of an encounter)'이 무대에 오른다.

극장 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상시적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탭댄스와 힙합댄스, 판토마임, 요요, 움직이는 동화책 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개막연주로 참여하는 뷰티플마인드 뮤직아카데미 학생들의 앙상블연주는 장애를 가진 연주자들의 공연이란 점에서 뜻 깊다.

이밖에 영화·전시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성교육, 시각장애어린이를 찾아다니는 이동식도서관 '북소리 버스' 체험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축제 관계자는 "장애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닌 장애·비장애인 간의 편견 극복과 통합을 목표로 한다"며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만나는 경험은 비장애어린이들에게도 장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축제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옛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충무아트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필수이고 극장공연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는다.

극장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축제 준비를 위해 쓰인다. 02-2234-4036

kje1321@newsis.com

장애인·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

공연마당/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

이경은 기자 입력 | 2012.09.04 15:21 소설연결 | 0

공유하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축제다.

2003년에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극장을 찾기가 어려웠던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년별 공연을 비롯해 음악·무용·치유 워크숍 등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소외받았던 장애어린이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자신감을 심어준다.

6회째를 맞는 2008년부터는 일본 극단 경예, 오스트리아 극단 메자닌 등 역량을 갖춘 해외 극단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틴토(Teatrodistinto)의 <키시쿠시-만남의 흔적(Kish Kush-Traces of an encounter)>를 초청한다.



<극장으로 가는 길>은 장애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다. 장애·비장애인 간의 편견 극복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본 축제는 비장애어린이도 함께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것이다.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홈](#) > [뉴스](#) > [연예](#)
연예

“공연으로 장애 편견 깨요”

지면발행일 2012.09.11 27면 지면보기 기사목록

김민준 | mjkim@metroseoul.co.kr



▲ 국제장애어린이축제

별다른 말을 이끌고 메달을 향해 뛰던 올림픽인 모습으로 전 세계인에 감동을 안긴 2012 런던 패럴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포츠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그 열기를 문화계가 이어간다. 문화예술교육 디베프와 송무아트홀이 손잡고 14~15일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 극장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2003년 소외된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무대는 장애 비장애 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했다.

올해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텐토의 '키시쿠시-만남의 흔적'이 해외 초청작으로 관객을 만난다. 무대와 객석을 얽은 종이 막으로 갈라 다란 그림자를 통해 소리 없는 환상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장애 비장애 인의 이해와 화합이라는 축제의 목적에 걸맞은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외에도 극단 성시어터라인의 '명랄토끼 만만세', 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의 '우물쭈물 거울', 디베프의 인형극 '알치가 늑대' 등이 공연된다.

송무아트홀 아키에서는 합창, 탭댄스, 판토마임, 요요, 움직이는 동화책 공연 등이 펼쳐지고, 치유워크숍으로 음악 무용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부분 공연은 무료이고, 극장공연의 경우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문의: 02)2234-4036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모든 어린이를 위한 단 하나의 축제

문화칼럼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

기사입력: 2018년09월 08일 화 | 최종편집: 2018년09월 08일



대한문화재단

- ☞ [속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배경선형 암보험 인기폭주!
- ☞ [속보] 영월비 둘러보는 메리츠화재 의료선비보험 가입특주!

www-



[문화재단21 이슈포커스 이코노미컬쳐] 장애 비장애인을 가르치 않고 함께 즐기는 축제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개최된다.

2003년에 시작돼 올해로 10회 짝을 맞는 <극장으로 가는 길>은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극장을 찾지 어려웠던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장애어린이 문화권 확대에 앞장서왔다.

지난 9년간 75개의 공연을 포함 190개의 프로그램이 축제를 통해 약 23,000명의 관객을 만났다. '장애인인지실천운동본부'는 2008년 본 축제에 '장애인인지 실천상 대상'을 수여해 칭찬 받았다.

2008년부터 일본 극단 곁에, 오스트리아 극단 메자닌 등 역할 있는 해외 극단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티노(Teatrodistinto)의 <키시쿠시-만남의 흔적(Kish Kush-Traces of an encounter)>를 초청한다.

축제 측은 공극적 복지에 대해 "장애 비장애어린이들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이를 통해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장애어린이를 위한 축제에 비장애어린이가 참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생소했다. 결국 수많은 어린이단체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축제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필요로 한다. 극장공연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으며, 극장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다음 축제를 위해 쓰인다. 이 외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문의: 문화예술교육 디베트, 02-2234-4036).

yk@mh21.com

《인터넷종합일간지(문화재단21),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신문 Weekly Issue Focus News), 경제와 문화뿐 아무래는 종합일간지(이코노미컬쳐economy culture) 종합보도자료 수신》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동심은 항상 축제 중 <세계일보>



총무아트홀 '국제장애어린이축제' 14일 개막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축제는 즐겁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축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다. 하지만 장애 어린이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 장애 어린이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이 14, 15일 서울 중구 총무아트홀(02-2234-4036)에서 열린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이 14, 15일 여름간 총무아트홀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옛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총무아트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하는 국제장애어린이축제는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행사다. 이 축제는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극장을 찾기 어려웠던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다. 난비탈 공연을 비롯한 음악·무용 치유 워크숍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특히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티노(Teatrodistinto)의 초창작 '키시쿠시-만남의 흔적'이 공연된다. '키

시쿠시'는 히브리어로 '낙서'라는 뜻. 자아의 경계를 넘어 타인과 만나 새로운 창조적 영역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빛과 그림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대사만으로 진행되기에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극단 성시어터라인의 '명랑토끼 만만세', 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의 '우물쭈물 거울',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의 인형극 '양치기 늑대' 등의 공연이 열린다.



총무아트홀 야외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탭댄스·힙합댄스·무언극·요요·움직이는 동화책 공연 등도 준비돼 있다. 뷰티풀마인드 뮤직아카데미 학생들의 앙상블연주는 장애를 가진 연주자들이 준비한 무대다. 장애 어린이의 치유를 위해 음악·무용 치유 워크숍, 지적장애 사진작가의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진이야기' 전.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 강의도 유익하다. 인형 만들기, 타일점자 목걸이 만들기, 책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극장공연만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입장료가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극장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다음 회 축제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장애·비장애인 간의 편견 극복과 융합을 목표로 하는 만큼 비장애어린이도 축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문화 광장] '이해와 화합' 조금 다를 뿐인 친구와의 이 올림

'국제 장애 어린이 축제' 14-15일 서울 송파아트센터
김태우 눈동미 맞춘 디플로마 문화예술 공연 선보여

최정선 기자 cjeon@hank.co.kr

<행사의 취지>

국립으로 가는 길

나와는 조금 다른 친구와 어울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바른 언어 규칙의 길을 찾아가는 특별한 축회가 마련된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국제 장애 어린이 축제 '국립으로 가는 길'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송파아트센터에서 열린다. 2002년 처음 선보인 이 축제는 신재 - 심리적인 이유로 국외를 찾지 못했던 장애우들의 눈동미 맞춘 디플로마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선보여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제 장애 어린이 축제 '국립으로 가는 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올해 역시 문화 예술 및 건보 공연 프로그램 35개가 준비된다. 특히 이탈리아 무단 티레티오디스 민속의 '카시쿠사-민속의 흥취'가 해외 초빙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카시쿠사는 '낯선 것은 것의 허브'라 하여, 일본 악동 사키에 두고 고릴라와 소라만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이해와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지역 장애 시민작가 6명의 사진 60여 점을 보여 주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진 이야기'와 장애 어린이들이 통해서 편지를 보내하는 '부담을 던진다'의 상상화도 눈길을 끈다. 음악 및 무용 치료 워크숍, 장애 어린이 부모를 위한 심리극, 의상극과 합창 단스, 오호, 어린이 프로그램도 차려진다.



특지형 '파리'는 제 한 장면.

이 축제는 신청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장애 어린이 축제 사무국(02-2234-4286)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with-소용반 만남'전을 여는 테니스 한미 작품들.

<공연>

△다섯 명의 유쾌한 배보들: 서커스단으로 한 뒤 리복만 맡은 권위적인 단장과 이해 반항하는 장난기 넘치는 4명의 단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용을 그린 언어 뮤지컬, 서커스와 마술, 리모컨 연주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대사가 없고, 노래와 몸짓이 많아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12월 23일까지 라포어틴이극장, 문의 (02)980-389

△할라 모차: 독일의 그림 형제가 발표한 곱동 이름의 동화를 각색한 언어 뮤지컬. 할라 모차 소녀와 늑대 둘 주인공들이 일상을 사는 형이 담벼락 문장을 대사로 인용해 이야기와 친해질 수 있게 해준다. 할라니로 영상상 녹화와 영간 모자의 재미난 소리 장면도 눈길을 끈다. 10월 28일까지 KBS 수형아트홀, 문의 (091)216-5200

△행렬 표제 판만세: 국악 뮤지컬. 장난꾸러기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표제가 눈물보 거북을 만나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헤엄쳐 온다는 내용이다. 공연 시간(10시)에 갈수록 북, 징 등 전통 악기가 울려 퍼져 감동을 선사한다. 12월 말까지 서울 송파아트센터, 문의 (02)089-2258

△피터팬: 가요 뮤지컬. 세력에게 불쌍해 간 열다와 네비엔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피터팬 몸이 약할 때의 성장과 별이는 모험을 겪었다. 신나는 노래와 경쾌한 안무, 다양한 소품과 무대 장치까지 대니메이션을 보는 듯 생동감을 선사한다. 10월 30일까지 서울 경복궁역 문화극장, 문의 (02)790-7606

<연사>

△'태양 2012'전: 태양 문명을 소개하는 특별전. 한국이 핵시크와 과학발라와 수교한 지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태양산 인류 문명 향도와 국제 지구를 오려 붙인 '죽음의 산' 장신구 등 미야 유물 3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10월 2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271

△'with-소용반 만남'전: 지역 장애를 가진 최가 테니스 한미 작품들, 3세까지만 9세 미만의 지능을 가진 그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테니스 판과 아르헨티나 제철 자화상'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도 전시 기간 마련된다.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 풍악아트센터 상상박물관, 문의 (02)2289-5401

△'전통에서 새 문화로 살아있는 우리 문화'전: 모시나 실크로 만든 소박한 후명 보자기, 문양과 꽃을 수놓은 보자기를 만날 수 있다. 표지보와 표본보, 상보 등 전통 보자기와 대곡·영국 등 외국산 직가들이 만든 작품 총 130여 점이 나왔다. 23일까지 대구 자연염색박물관, 문의 (053)981-4300

www.thefefu.org



[스튜디오뉴스=정진욱 기자] 문화예술교육 디베트(구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송무아트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하는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이하 <극장으로 가는 길>)이 9월 14일, 15일 양일간 송무아트홀에서 열린다.

2008년에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극장으로 가는 길>은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극장행 향기 어려웠던 장애어린이들이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친 극장에 갈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어린이 문화권 확보에 앞장선다. 난방비 공연을 비롯해 불악 무용 치유 워크숍 등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문화 축제 또한 장애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이다.

이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받았던 장애어린이들에게 '주변인'에서 '중심'에 속해 있다는 위로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2008년부터 일본 극단 곁에, 오스트리아 극단 해자난 등 역발 있는 해외 극단을 초청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이탈리아 극단 테레도르다스틴토(Teaterdordato)의 <커쉬쿠시-만남의 흔적 (Kush Kush-Traces of an encounter)>를 만나 볼 수 있다.

축제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외작품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국제적인 어린이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본 행사는 지난 9년간 75개의 공연을 포함 190개의 프로그램으로 약 28,000명의 관객을 만났다. 이와 관련, '장애인인지실천운동본부'는 2008년 본 축제에 '장애인인지실천상 대상'을 수여해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올해 10회자를 준비하면서 지난 2회부터 9회까지 행사장이었던 서울여성플라자를 만나 송무아트홀에 새 물자를 옮겼다.

<극장으로 가는 길>은 장애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다. 장애 비장애인 간의 편견 극복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 축제는 비장애어린이에게도 활짝 열려있다. 축제 속에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만나는 경험은 비장애어린이들에게도 장애인식 개선 등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극장공연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는다. 극장공연의 수익금의 전액 다름 축제를 위해 쓴다. 그 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프로그램 상세는 홈페이지(www.thefefu.org) 참조. (문의: 문화예술교육 디베트, 02-2294-4036)

<공연 개요>

| | |
|-----|-----------------------------|
| 행사명 |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 극장으로 가는 길 |
| 기간 | 2012년 9월 14일(금)-15일(토) |
| 장소 | 서울 오픈 송무아트홀 (지하철2, 6호선 신당역) |
| 대상 | 장애 어린이·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그 가족 |
| 주최 | 문화예술교육 디베트, 송무아트홀 |
| 주관 | 장애어린이축제집행위원회 |
| 후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홈 > 전체

문화

국제장애어린이축제 14일 광파르

충무아트홀서 년별 공연 등 다채

[시민일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국제장애어린이축제가 14~15일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극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의 문화권 회복에 나선다. 년별 공연을 비롯해 음악·무용 치유 워크숍 등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해외 공연으로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티노(Teatrodistinto)의 '키시쿠시-만남의 흔적(Kish Kish-Traces of an encounter)'이 무대에 오른다.

극장 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삼시적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탭댄스와 힙합댄스, 판토마임, 요요, 움직이는 등화책 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개막연주로 참여하는 뷰티플마인드 뮤직아카데미 학생들의 앙상블연주는 장애를 가진 연주자들의 공연이란 점에서 뜻 깊다.

이밖에 영화·전시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성교육, 시각장애어린이를 찾아다니는 이동식도서관 '북소리 버스' 체험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축제 관계자는 "장애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닌 장애·비장애인 간의 편견 극복과 통합을 목표로 한다"며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만나는 경험은 비장애어린이들에게도 장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축제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옛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충무아트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필수이고 극장공연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는다.

전용혁 기자dra@simnibo.co.kr

[시민일보 바로가기]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개최

오는 14~15일 충무아트홀...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 다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03 13:23:46



임시저장
저장목록
목록삭제
도움말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길'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를 주최하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축제 기간동안 이탈리아극단 티에트로 디스틴토의 '키시쿠시(Kish-Kush)', 극단 성시어터라인의 '명랑토끼 만만세', 창작공동체 얼굴의 '얼굴우물쭈물 거울' 등 다양한 전시·공연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행복한성문화센터 배정원 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의 강연자로 나선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극장공연의 경우 최대 2,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이 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일정은 제10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홈페이지 (<http://club.cyworld.com/TTfestival>) 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극장 공연의 수익금은 '제11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문의: 문화예술교육 더베프(02-2234-4036)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클린이더



천지일보

www.newscj.com

- 뉴스
- 오피니언
- 기획
- 독자천지
- 별천지
- 천지TV
- 종교천지
- 문화천지
- 지역천지
- 건강
- 교육천지
- PR천지

- 100세 보장 동부화재 의료실비보험 가입
- 100세 보험추천 의료실비보험 보험견적닷컴

- 100세 의료실비보험비교 보험견적닷컴
- ▶깨끗한치킨 BHC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장애·비장애 어린이 함께하는 축제마당 트키닷컴

2012년 09월 11일 (화) 21:30:01 김성희 기자 kimsh@newscj.com

홈 > 뉴스 > 문화 > 문화일반

기사전송 > > [트키닷컴](#)

[매일보내기](#) [오류신고](#) [프린트](#) [가](#) [가](#)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축제는 즐겁다.” 장애어린이가 일상의 고단함을 잊은 채 극장을 찾아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됐다.

‘국제장애어린이축제-극장으로 가는 길’은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또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극장을 찾기 어려웠던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극장에 찾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권 회복에 앞장서왔다.

올해 10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구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충무아트홀의 공동 주최로 14, 15일 서울 중구 홍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난 9년간 75개 공연을 포함해 190개 프로그램으로 2만 3천여 명의 관객과 만났다. 2008년부터는 일본 극단 경에, 오스트리아 극단 메자닌 등 역량 있는 해외 극단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이번 축제에는 이탈리아 극단 티에트로디스티토(Teatrodistinto)의 ‘키시쿠시-만남의흔적(Kish Kush-Traces of an encounter)’을 초청한다. ‘극장으로 가는 길’은 축제의 의미와 목적에 걸맞은 해외작품의 지속적인 초청을 통해 국제적인 어린이 축제로의 발돋움에 꾀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극장공연은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의 입장료가 있다. 수익금은 전액 다음 축제를 위해 쓰인다. 이 외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공무원 시험의 중심 공단기

노랑진 공무원 수험생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학원**

노랑진 전체 수강생 50% 이상 수강 (매년 10월)
공무원 학원 오프라인 수강생 1위 (40여년째 뉴스)

[무료강의 보러가기 >](#)